

祈雨文

佛頭花

야말로幸福者이다 그야말로無師獨悟者이다! 正말 부럽게도하구나! 天空海淵과山高水長이 人生의大教材이오鳥啼花笑와犬吠雞鳴이亦是그것일뿐! 南田北畝에麥黃稻青이一々이모도가教材이고學科가아닌가? 이것호豐富한教材、學科로부러大度量、大智識도 여기서엇고大經驗大勇躍도여기서엇는것이다!

小弟야또大自然景의滋味가그얼마나마는가? 靑山綠林間에소(牛)의뿔고나뿔나는플넉사이로나뿔뿔 서笛불고거리가는맛이엇더하며 白鷺가조울고잇는

蒼波白沙우으로自由放歌하면서맛매고도타오는맛이 또한엇더한가? 小弟야나々例를들면眞味가가득한고개가數없이만라만은趣味眞々한樂境이라말이너머길 어질가그만편을던지려고한다小弟야또호호또한番付托은이것이决코너를慰留하는말이아니라眞情으로美望하는바이다! 小弟야! 나의敬愛하는小弟너는一片此書를뜻잇게읽어달나는것이다小弟야健康하여라.

戊辰九月廿五日 漢陽 寒煙 謹誌

(此間七行削除)

丁卯年을 눈물겨움게送하고 戊辰歲를 반가움게迎하자 靑帝의君臨으로 自然의女神이 紅花로 春城을 香계裝飾하고 芳草로乾坤을 어엿부게우미은씨가 아직도 눈에薰微한데 어느듯 赤帝가 天下를號令함에 日光이뜨거우이여 江乾河燥하고 月色이붉음이여 草枯蓬凋로다. 十有餘年동안 旣

속에 파뭇치잇든매암이의 樹顛鳴聲은 旱魃을絶되하고 警報의責任가진雨兒는 七龍의消息을 報하지아는지가 임의오래니 是何事耶아.

傷心哉라 五風十雨는 이聖世泰平의象徴이언만 三夏가벌서過去하여도 甘雨는不下하고 다만靑天에黑雲이徘徊하고 空間에狂風이往來할뿐이니 半萬年の芳史를가진 우리朝鮮은 五濁의惡世耶아.

三災의世相耶아.

五日不雨則無麥이요 十日不雨則無禾는 喜雨亭記에所謂어늘 數月不雨하니 無麥無禾는 自然的必然의事實이라 麥禾가無하면 大衆은 將且 잇되케生活하라는가. 使天而雨珠라도 寒者는 不得以爲糯요 使天而雨玉이라도 飢者는 不得以爲粟이라하니 此는必히 使天而雨々라야 飢寒者! 得以爲粟糯이리니 至今에는 晚時之歎이 不無하니 萬一에 時刻을遲滯하면 設令 使天而雨々라도 成服後에藥方文格이지 何等의效果가無할것이다. 緊急救濟策은 使天而雨衣雨食이라야하리니 此는根本的絶對的不可能의事實이여니 大衆은또한 엇더한方策을 取하라는가.

넋적 春香의十枝은 平壤監司의秋霜의威風이어늘 戊辰의七龍은 笞刑處罰하는者無하며 唐나라 韓刺史가 天子大命을拜受하야 鱈魚를 七日之間에 驅逐하엿건만 朝鮮에는七龍을號令할者가無하니 大自然을支配치못하는所以이다.

戊辰夏에 大旱魃은 醴泉宮에祈晴祭지내든 嘉祐元年大雨水와 漢江과洛東江沿岸에서 鱈浪鯨波가多數의生靈을삼키든 乙丑年大洪水를 聯想케하

니 이것이 아인스라인相對性原理인가 娑婆의特色인가.

嗚呼라 時運이不齊하고 命途가多舛이라. 堯舜은帝位를 禪讓하는데 我田引水戰에 쇠스랑으로 殺人하며 阿房宮도 楚人一炬에 焦土로化하엿지만 씨가노라스케 라죽엿다고 논에放火하며

(此間十三行削除)

嗟乎라 一人之心은 千萬人之心이니 蒼々蒸民은 父母 兄弟 天婦 할것업시 다가지 손에손을마조잡고 뜻에뜻을서로合하여 一心精力으로祈雨합시다. (次)

二九五五.八.二七日 漢美山下 爐香室雨窓에서記

